

◇한국경제구조의 이해와 합리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시리즈(1)

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의 변화과정과 특성

이 시리즈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 특히 산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註)

I. 자본주의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동, 곧 산업간 불균등발전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농업업에 비해 제조가공산업의 비중이 증대하며 또한 그와 결합되어 제3차 산업의 비중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산업구조의 변동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서 초래된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동일량의 생활자료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감소한다. 그에 따라 생활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가공되며 인공의 원료가 자연자원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제품의 제조와 가공이 확대되어 제조업의 생산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개개 산업에서 생산력증대는 그 산업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결과한다. 그리고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곧 산업전에서 생산수단 생산부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른바 중화학공업화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산업구조변에서 제조가공산업의 비중증대,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증대 등과 같은 현상을 두고 이른바 '산업구조고도화'라 부른다. 여기에서의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 하에서 국가의 강도높은 지원하에서 공업화, 중화학공업화 등 '산업구조고도화'의 전개 양상과 그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며 한편 8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산업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이해의 전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 변동

위에서 산업구조의 변동, 곧 '산업구조 고도화'는 자본주의 발전, 곧 생산력의 발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건주어 보는 한, 한국자본주의에서 축적의 물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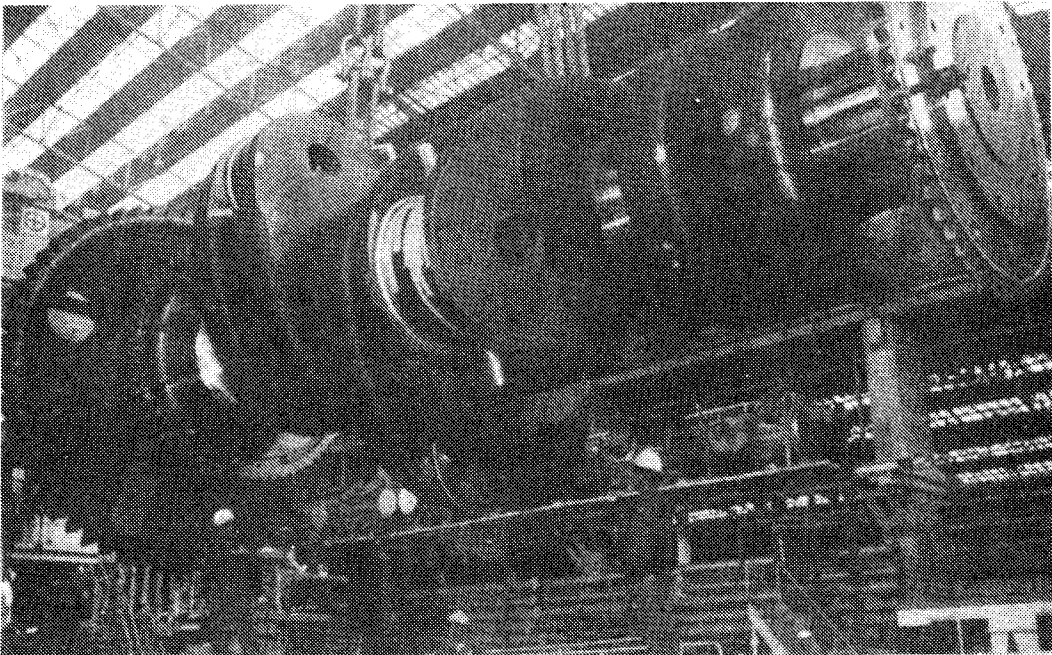
초를 이루는 산업구조도 고도화하여 왔다고 하겠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지금까지 6차례의 계획연차를 거듭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왔다. 여기서 '고도화'란 물론 이미 지적한대로 전 산업에서 제조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또 제조업 가운데서 중화학공업의 비중 증대 등, 비중면에서의 양적 변동을 의미한다. 높은 생산성 증대와 고축적의 결과로 한국자본주의의 생산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는데, 이러한 생산력 증대는 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전개된 결과 각 산업별 구성비의 변동, 곧 '산업구조 고도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물론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업이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기준)이 제조업의 그것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으나, 70년대중반을 거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농업업을 능가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주된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컨대 1961년-1989년 기간동안 농업업은 41.4%에서 10.2%로 줄어든 반면, 광공업은 14.6%에서 31.9%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은 12.6%에서 31.3%로 크게 높아졌다. 물론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제3차 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다소의 비중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취업인구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집약되는 산업구조 변동은 특히 중화학공업화, 곧 제조업 가운데 중화학공업의 비중 증대 현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1970년대, 중반 산업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업의 그것을 능가한 이후 곧바로 70년대말-80년대초를 거치면서 제조업 가운데 중화학공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공업의 그것을 앞지르게 되었고 1989년 현재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제조업의 61.3%에 이르러 제조가공산업 자체가 이제 중화학공업에 의해 지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화학공업 가운데 기계설비의 생산

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조립금속 및 기계가공부분이 가장 빠른 tempo로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 비중은 제조업내에서 1962년 11.2%에 불과하던 것이 1988년 현재 33.2%로 제조업전체의 3분의 1정도로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대체로 중화학공업 가운데서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부분의 비중이 정제 내지는 감소한 반면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부분은 크게 늘어나 근자의 수출증대와 고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기계가' 기계를 부르는 구조로 산업구조는 고도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89년 현재 산업



생산력 증대 따른 자본의 축적조건 변화 불가피 국제수지악화, 산업간 불균형 구조고도화 촉진

별 비중은 농업업 10.2%, 광공업 31.9%, 제3차산업 57.9%이다. 광공업의 그것을 100으로 하면 농업업은 32가 되고 제3차산업은 182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를 수치 그 자체를 통해 산업구조상의 특징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산업구조 변동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변동의 과정, 곧 산업구조 고도화는 이미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한국자본주의의 높은 생산력발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약적 생산력 증대현상에서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역시 중화학공업화이다. 중화학공업화는 근대적 기술장비를 구축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대자본, 대규모설비, 근대적 동력체계, 훈련된 노동자 등과 함께 한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 그 자체가 생산력 발전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은 자본축적에서 그 리고 재생산구조에서 중심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생산수단생산부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생산수단이란 기계설비 등과 같은 노동수단과 원재료 등과 같은 노동대상을 의미하는데, 중화학공업에는 가전제품, 승용차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를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우선, 급속한 공업화의 지향이 수출주도형으로 전개됨에 따라 업종·품목별 불균등발전이 수출관련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산업구조는 외형적인 구조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의 수요기반과 유기적 결합을 이루기에 앞서 수출이라는 해외수요와 결합됨으로써 '소나기식' 수출이 가능한 부문이 돌출적으로 성장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주요 업종별로 보든 경우 70년대중반까지는 섬유·의복 부문이 그리고 70년대 후반에는 섬유·의복부문에 더하여 전기전자부문에 대량수출을 통

미한다. 곧 중화학공업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부문은 생산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재가 주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80년대 들어 기계설비 등 노동수단의 생산과 이의 수출도 늘고 있는 형상이 주목되지만, 여전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③위 ①과 ②를 연관지어 보면 공업화, 중화학공업화는 주로 최종재의 조립가공과 이의 수출을 매개로 전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전개된 산업구조 변동은 극히 대외의존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④대외의존성은 특히 조립가공형 수출주도공업화가 그에 요구되는 자금의 해외조달, 기계설비·연료·반제품 등 생산수단의 높은 수입의존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최근까지 높은 수출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입의존의 결과로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구조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각종 생산수단의 수입의존 뿐 아니라 기술개발에서도 자체개발에 앞서 도입기술에 의존하는 체질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⑤한편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동이 외형성을 띠고 전개돼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면

◇80년대를 거치면서
생산기반으로서의
산업구조의 변동
에서 대기업자본의
규정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 클릭
스
터
1. 한국산업구조의 변화과정
 2. 국제분업체제개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산업구조조정의 현황과 성격
 4.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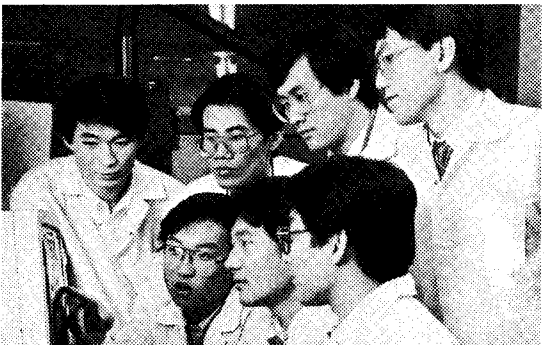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동은 산업간 및 업종간 불균형을 수반하면서 고도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구조변동의 전제이자 결과로서 대외의존성이 작용하는 한편, 근자에 와서는 국내대자본의 지배력 강화의 결과 구조변동에 대한 이들의 규정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산업구조 변동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변동, 곧 생산력 발전의 방향은 자본축적의 조건을 이루는 내적요인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①대외의존성 규정이 의미하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국제적 독점자본의 활동양식, ②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을 해외에서 구하는 국가의 수출주도공업화 전략과 그에 의거한 국내의 자본에 대한 유리한 축적조건 조성, ③유리한 축적조건을 기초로 한 국내 대자본의 생산 및 자본면에서의 대량집적, 도입의존을 기적으로 한 기술력 확보와 높은 시장지배력 등의 요인이 그 변동에 규정적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하청관계를 통해 독점적 대기업의 생산력 기반을 보완하는 존재로 재편되어 온 중소기업 그리고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고정성=고축적의 근원을 이루는 양질의 풍부한 저임금노동력의 존재와 노동자계급의 대량집적 및 세력화와 이의 축적구조에의 반작용 등도 중시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이들 내적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그 반영으로서 산

력히 살펴 보았다. 한국자본주의는 80년대 중후반 이른바 '3저호황'을 배경으로 고속의 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그 축적조건을 이루는 요소들에서 다소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자본에 의해 이른바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기반의 신규축을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 정책이란 대개 생산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와 자본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련의 자본축적위기의 격화를 계기로 하여 그에 따른 자본에 유리한 축적조건 조성은 내용으로 수행되 마련된다. 따라서 자본에 유리한 축적조건 조성은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란 곧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근자에 제기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바로 기왕의 산업구조 변동을 규정하는 힘들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시리즈의 다음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작금에 제기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은 그 지향을 첨단산업화, 구조불황산업의 퇴출과 업종전환 그리고 기술력 향상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만 지향일 뿐 그 현실적 방향은 기왕의 축적조건 변화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축적조건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한 개방압력의 강화에 상응한 경제개방의 확대 현상이다. 또한 시야를 보다 확대해서 보면, 이른바 '산업구조의 조정'은 오늘날 세계경제의 흐름을 형성하는 자본의 국제화 그리고 국제간 산업조정(국제분업구조의 재편)의 방향에서 내적 생산기반의 조정을 위해 강제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이 주도하는 국제분업망의 세계적 재편의 방향에 의해 조정의 폭과 깊이가 제약받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차원에서 재생산구조의 종속과 그에 따른 잉여의 누출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조정을 주도할 국내 독점대기업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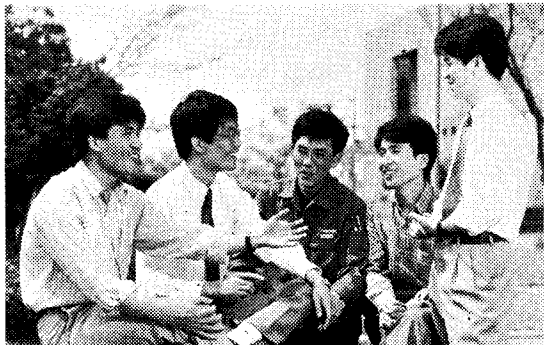
임 휘 철
(성대경제·경제학)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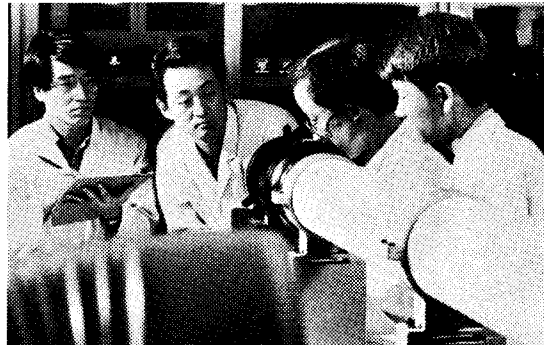
4메가D램 반도체, 슈퍼-VHS, 8mm캠코더... 세계 첨단기술을 만들어온 삼성인 —



삼성반도체연구소 4메가 D램 개발팀



삼성전자 슈퍼VHS개발팀



삼성항공 8mm 캠코더 zoom렌즈 개발팀

“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

삼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첨단기술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술을 이전하거나 가르쳐주려 하지않는 병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그리고 200년에 걸친 기술의 축적이 불과 20년만에 역전되는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세계 초일류가 되기위해서 필요로하는 마지막 한가지는 창의와 도전 그리고 성취의 '젊은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결단력의 젊은 의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큰 세계를 향하는 젊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삼성 — 삼성은 첨단기술로 세계 초일류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젊은 의지, 세계를 향해 펼쳐십시오.

인재와 첨단기술의

